한국의 수산식품산업 통계 현황과 과제

이 헌 동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중요성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는 통계(Statistics)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는 통계야말로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하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산)식품산업 관련 통계의 실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현재 정부는 식품산업의 잠재력을 성장 동력화함과 동시에 농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세계 일류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식재료의 사용 확대, 농어업인 참여형 식품·외식업의 육성, 로컬푸드(Local food) 소비 확대 등 1차 산업인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제공 실태가 어떠한지, 이용되는 통계가 기초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통계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식

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통계가 발굴·개선해야 할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수산포커스에서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한 총 884종의 국가승인통계[2] 가운데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통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어떤 통계가 발굴·보강되어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수산식품산업 관련 통계, 어떤 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제공되고 있나?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식품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살펴볼 통계의 종류가 달라진다. 식품산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 마다 견해에 차이가 있으나 광의(廣義)의 개념에서 볼 때, 농림축수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보관·유통·조리·소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생산단계 이후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의 관련 정보가 포함되는 각종 통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가공 통계

수산식품의 제조·가공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기별로 조사하는 '수산물가공업통계'로서 가공품의 유형을 총 14가지[3]로 분류하고, 이 분류방식에 따라 약 90여개의 세부 어종별 가공품 생산현황이 연도별·지역별로 제공되고 있다. 이 통계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만큼, 향후 수산식품산업의 관점에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사설계 및 내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토대로 광

2) 국가승인통계의 명칭과 간행물 명칭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간되는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는 간행물의 명칭이지 통계에 대한 명칭이 아니다. 즉, 연보에 있는 각종 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 '무역통계' 등 국가승인통계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3)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어유분, 한천, 연제품, 조미가공품, 수산피혁품, 기타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업 및 제조업에 속해 있는 세부 산업의 현황을 산업편, 품목편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산업편에서는 식료품 제조업 가운데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종사자수 5인 이상)'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부가가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품목편에서는 약 40여개 수산식품의 종류별로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금액, 완제품 연말재고액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서는 어육제품, 젓갈류, 수산물조림, 건어포류, 조미김, 소금, 수산물가공품 등의 생산실적 및 출하실적(수출 포함)이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유통 통계

수산식품의 유통과 관련된 통계로는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가 있다. 이 통계는 비가공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의 사업체 현황과 매출실적(비용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수산도매시장통계연보'를 통해 부류별(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도매시장의 현황 및 거래실적, 출하선별 유통량, 반입형태 및 매매방법별 거래실적, 수입 농수산물의 거래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수출입 통계

수산식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통계로는 관세청의 '무역통계'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가 있다. '무역통계'는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로 수출입 실적을 HS, MTI, SITC 코드별로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는 매년 국가별, 품종별, 제품별로 수산물의 수출입 검사실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 및 물가통계

수산식품의 소비와 관련된 통계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가 있다. 2인 이상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에 대한 정보가 분기 및 연별로 제공되고 있는데, 식료품 가운데 신선 수산동물, 염건 수산동물, 기타 수산동물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에 대한 가계지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 가계지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매년 '식품수급표'를 발간하여 식품의 수급 상황과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 및 영양공급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다.

수산식품의 물가(가격)와 관련된 통계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조사' 및 '수출입물가조사'와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가 있다. 각 물가지수마다 조사품목은 차이가 있다.[4)]

기타 통계

200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분야별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아직까지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식품 제조업 및 유통, 외식업 및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식품산업 주체간의 농수축산물 원재료 소비량을 측정하여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는 현재 명태(동태, 생태 포함), 물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꽁치, 김과 같이 총 7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통계의 제공시점 및 정보 제공 수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소비 식품 순위 및 1인 1일 평균 섭취량, 그리고 나트륨, 단백질, 비타민, 지방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4) 생산자물가지수 : 김, 건멸치, 전복, 조개, 굴, 게, 물오징어, 조피볼락, 고등어, 갈치, 조기, 넙치, 가자미, 간고등어, 맛김, 젓갈, 조미어포, 참치통조림, 어육연제품
소비자물가지수 :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꽁치, 가자미, 오징어, 굴, 조개, 생선회,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북어, 젓갈, 생선통조림, 어묵, 맛살, 오징어채, 북어채, 김, 맛김, 미역, 소금
수출물가지수 : 참치, 오징어, 조개, 김, 필레트
수입물가지수 : 냉장어류, 냉동어류, 냉동어육, 어류가공품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의 종류 및 정보 제공 수준

구분	통계명(작성기관)	수산식품 관련 정보의 제공 수준
제조·가공	수산물가공업통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역별·어업별(연근해, 원양) 가공실적 - 냉동품(원형동결, 처리동결), 통조림품, 연제품,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해조제품, 조미가공품, 염장품, 염신품 등의 세부 어종별 가공실적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 산업편 :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산업현황(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생산비, 부가가치 등) - 품목편 : 소금, 어묵류, 조미제품, 통조림, 건제품, 젓갈류, 냉동품 등 약 40개 종류별 산업현황(사업체수, 생산액, 출하액)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식약청)	- 어육제품, 젓갈류, 수산물조림, 건어포류, 조미김, 소금 등의 가공업체수, 생산현황, 출하현황 -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매출현황 등
유통	도소매업조사 (통계청)	- 비가공 수산물 및 가공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의 사업체 현황(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인건비 등)
수출입	무역통계(관세청)	-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수출입 실적 (HS, MTI, SITC 코드별)
	수출입수산물검사통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국가별·품종별·제품별 수출 및 수입 검사실적
소비, 물가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신선 수산동물, 염건 수산동물, 기타 수산동물 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의 소비지출 현황
	생산자물가조사 (한국은행)	- 지역별·월별 수산물(13개), 가공품(6개)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 지역별·월별 어개류(19개), 해조류(3개), 소금 등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조사 (한국은행)	- 냉동·냉장어류, 냉동어육, 어류가공품의 수입물가지수 - 김, 조개, 오징어, 참치, 필레트의 수출물가지수
기타	식품산업분야별현황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7개 품목(명태, 물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꽁치, 김)에 대한 정보 제공 예정(현재 공표되고 있지 않음)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식품군별 1인 1일 평균 섭취량, 영양소 섭취량 등 - 나이아신, 나트륨, 단백질, 당질, 비타민, 칼슘, 지방 등 섭취량의 주요 급원식품 현황 등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및 각 기관별 통계 제공현황을 참조하여 적성한 것임.

수산식품산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통계 발굴이 필요

향후 수산식품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의 문제점 진단 및 품질 개선도 중요하다. 그러나 수산식품산업

의 관점에서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 통계의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통계가 필요할까?

현재 각 유통 단계별로 수산물(식품)의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가공실적, 출하실적, 사업체 현황 및 매출규모 등 단편적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유통 단계별로 매입 및 판매경로, 거래비중, 구매 및 판매형태(원물, 전처리, 가공 등), 유통형태(상온, 냉장, 냉동)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산식품이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통계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도 각 유통 단계별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산식품산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계의 발굴이 필요하다. 과거 광물로 분류되던 소금(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수산물 중에서는 젓갈과 더불어 6대 발효식품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천일염 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대한염업조합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될 뿐이다. 따라서 천일염의 지역별・월별 생산실적, 염전현황, 시장규모, 유통・판매현황 등과 같은 세부적인 통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식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씨푸드(seafood)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외식업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음식점업의 사업체수 및 시장규모 정도이며, 씨푸드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향후 일반 외식업계의 수산물 식재료 구매실태 및 씨푸드 업계 현황,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산물 세부 품목별 소비패턴 등에 대한 통계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